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금·은메달리스트 안현수(오른쪽), 이호석 선수. 사진제공=연합뉴스

동계올림픽 빛낸 불자선수들

쇼트트랙 안현수·이호석, 금·은메달 따내 이호석 선수의 '아름다운 양보' 잔잔한 미담 여자 계주 최은경, 변천사 등도 불자 '기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의 메달 레이스, 그 한 가운데 불자선수들이 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안현수 선수(21·한국체대), 은메달리스트 이호석 선수(20·경희대)는 한국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주인공. 사상 첫 3관왕에 도전하는 안현수 선수는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인턴 오노(24·미국)를 가볍게 물리치며 첫 메달 획득의 스타트를 끊은 만큼 그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였다. 첫출발인 1500m에서 순조롭게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그의 3관왕 도전은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앞으로 500m, 5000m계주(이상 26일) 등이 줄줄이 남아 있고 제 실력만 발휘하면 이 가운데 2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첫 올림픽 출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호석 선수가 보여준 '양보'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아있다. 1500m 결승전에서 이호석 선수는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아웃코스에서 치고 들어오는 안현수 선수에게 순순히 선두를 내줬던 것. 이호석 선수는 경기 후 절대 양보가 아니었음을 밝혔지만 그가 사심 없는 보살심을 보여줘

우리나라가 금·은메달을 다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선수단의 평가다. 이를 밝히기를 한사코 거절한 이호석 선수의 할머니는 "어디에 있던 온 가족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26일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몸 건강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가족의 진심어린 기도도 그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3000m 계주에서 결승에 진출한 최은경 선수(22·한국체대) 변천사 선수(19·신목고)도 불자이다. 22일 벌어지는 결승은 한국과 이탈리아·중국·캐나다가 맞붙는다.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는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해 우리 시각으로 오는 2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캐나다 등과 금메달을 놓고 대결을 벌인다. 불자선수들의 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토리노 올림픽에서 그들이 영웅으로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국민여동생' 문근영씨 21세기 우수인재 선정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불자 탤런트 문근영씨(사친)가 제5회 '21세기를 이끄는 우수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 온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에는 80명이 뽑혔다. 수상자들은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문씨는 2월 1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메달과 교육부총리 상장, 300만원의 장학금 등을 받았다. 이날 청소년 발명왕 권민재, 예비 과학자 최인렬씨, 야구선수 한기주씨, 얼얼 북서 최신희씨 등이 함께 상을 받았다. 고교생 특장분야 재능 우수자 후보에 올랐던 문씨는 잇단 선형, 학교생활 및 연예활동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문근영씨는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5일 이탈리아 토리노를 방문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불교TV, 美 전역 실시간 방송



오른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불교TV회장 성우·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자리했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기념법회 지관 스님 '영상불사 새 지평' 법문

이에 앞서 불교TV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TV 미국방송은 동서문화 교류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불교TV가 하는 미국전역 실시간 방송은 국내 방송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간대로 미국에서도 방송한다는 개념이다. 불교TV는 미국 현지 시청자 그룹의 제1타깃을 현지 교포로 보고 있다. 2월 말 분방송에 들어갈 불교TV의 미주방송은 자막처리나 영어더빙 등이 없는 한국이 프로그램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이 안정되면 앞으로 현지인들을 위한 자막 더빙 등도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계획이다. 미국 방송을 위해 불교TV는 국내 위성플랫폼 사업자인 아이스카이컴과 계약했다. 이 아이스카이컴의 미국 파트너인 에코스타가 보유한 위성으로 디시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불교TV의 전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 방송된다. **강지연 기자**

불교TV(회장 성우)가 2월 15일 불교TV 미국전역 실시간 방송 기념법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날 "불교TV 미국방송은 부처님의 법을 맨 처음 전했던 '유륜불사' '경전불사'에 이어 최첨단의 '영상불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부처님의 법을 교포불자들이 미국 현지인들에게 전하는 훌륭한 불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국립국악원서 '명인명무전' 열려

전통 불교의식무용으로 춤 세계를 선보여온 일초 스님(사진)이 2월 24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바라춤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바라춤은 사다라니 바라춤. 이 춤은 바라춤 가운데 최상급으로 부처님 전에 신성한 공양을 올리는 의식에서 행해지는 춤사위이다. 스님의 이번 무대는 동국예술기획(대표이사 박종국)이 제42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에서 맡는다. 2월 21~24일 열리는 올해 명인명무전의 특징은 날짜별로 특색 있는 테마 무대를 꾸민다는 것이다. 일초 스님은 무형문화재 공연단체 연합회 이사장, 인해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현수류

재·10-나호 범패 작법무 보유자,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보여온 예인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번 명인명무전의 첫날마당 '소리와 몸짓'은 젊은 전통무용가들 9인을 선별해 전통무용의 미래를 열어가는 무대로 꾸렸다. 둘째 날은 9인의 '교수 명인명무전'으로 강단에서의 전문성을 무대로 옮겨왔으며, 셋째 날은 9인의 '중견 명인명무전'으로 각 분야에서 명성 있는 분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전국 팔도의 각양각색 살풀이춤은 마지막 날 무대를 장식하는 '8도8색 살풀이춤 명무전'에서 볼 수 있다. (02)2278-5452 **강지연 기자**



"문화지킴이 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2월 13일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장은 김광현씨, 총무는 이학성씨가 맡아 전통미술 보존과 전승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겠다는 포부다. 신임 김광현 회장은 "전통문화는 우리의 혼을 지켜나갈 등불"이라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전통미술의 가치가 오염되지 않도록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문화지킴이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는 문화재 조각기능인들이 모여 1986년 창립한 단체다. 2년에 한번씩 아홉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고 매년 전 회원이 동참해 17번의 문화재답사를 가졌다. **강지연 기자**

불교전통혼례 시연

2006한국불교박람회 박람회 기간 중 불교전통혼례 시연을 개최한다. 법현 스님의 주례로 3월 26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불교전통혼례 시연의 주인공은 대불원 출신 불자 한성욱 노을래씨. 이들은 10월 정식 결혼식에 앞서 불교전통혼례를 통해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첫발을 내딛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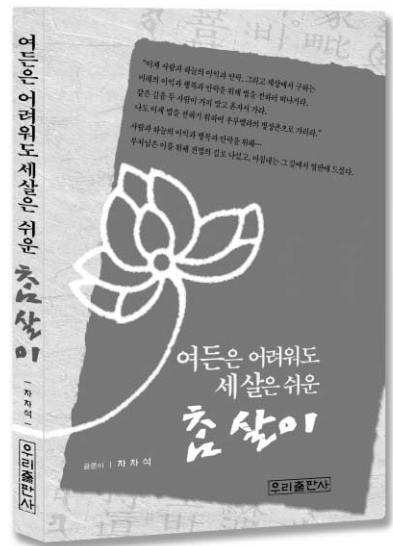
대한불자기수회 올 행사 발표

대한불자기수회(회장 김홍국)가 2월 13일 불교진흥원 다보빌딩 503호로 이전하며 이전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기수회관에 있던 사무실에서 진흥원으로 이전한 것이다. 18일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한 대한불자기수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디너쇼를 준비하고 있다. 매일 해오던 전국불자노래자랑, 군법당·교도소·양로원 위문공연 등은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불자기수회는 2월 21일 대한불교진흥원빌딩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차집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 일일차집의 수익금은 전액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지급된다. **강지연 기자**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든은 어려워도 세살은쉬운 초살이

글쓴이 | 차 차 석
신국판 | 양장본 286쪽 | 값 10,000원



"이제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부처님의 '전도선언' 중에서

- I. 부처님, 이 땅에 오시다 부처님이 세상으로 오심으로써 비롯된 불교발달사 및 핵심교리
- II. 없음과 비움의 철학적 사색 불교의 기본사상인 무아, 윤회, 공사상의 변천사
- III. 계율 이야기 승가를 유지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율의 근본정신과 발달사
- IV. 수행과 삶의 이야기 이상적인 불교적 삶의 방법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 V. 부처님, 여성을 보다 어떤 페미니스트보다 앞선 부처님의 여성관

차 차 석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불교신문 논설위원, 한신대학교 신학 협력단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출강 하는 등 불교 알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팩스: 02-393-9696 woribook@chol.com